

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특별교통대책, 차질 없는 이행 당부”

- 21일 평택 고덕지구 특별교통대책 점검… 적극적 주민 홍보도 병행 요청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1일(화), 오전 10시 30분경 평택 고덕지구를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평택시 관계자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평택 고덕지구 특별교통대책(3.2)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- 먼저, 이 위원장은 LH 평택사업본부를 찾아 “평택 고덕지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며, ‘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, 다양한 유형의 광역 및 내부 교통수요가 나타나는 지역이나,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연 및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인해 교통 불편이 극심했었다”라면서,
 - “이에 따라, 평택 고덕지구가 「광역교통법」 상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고, 오랜 검토를 거쳐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한 만큼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이 위원장은 LH 및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고덕지구 개발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특별교통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,
 - 특별교통대책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수요응답형교통수단(DRT)에 대해 “정보통신기술(ICT)과 전통적 교통 수단이 결합한,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이나,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에게는 낯선 서비스”라면서,
 - “수요응답형교통수단이 도입 초기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평택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진행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이후, 이 위원장은 LH 및 평택시 관계자와 함께 고덕산업단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고덕지구 내 주차,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 문제를 직접 살펴보았다.
 -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이 위원장은 “대중교통 서비스 부족으로 다수 주민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”면서,
 - “특별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대중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언급하였다.
-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고덕지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발 현장으로 이동하여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,
 - “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평택 고덕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많은 세부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”이라면서,
 - “조속히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발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진행 중인 광역교통 개선사업도 마무리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3. 21.

국토교통부 대변인